

# 졸업 후 물리치료사의 교육환경특성에 대한 조사연구

황성수, 권혜정<sup>1)</sup>

신구대학교 물리치료과, 동남보건대학교 물리치료과<sup>2)</sup>

## The Survey of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Environment on Post-Graduate Physical Therapists

Hwang Seong-soo, Kwon Hei-jeoung<sup>1)</sup>

Dept. of Physical Therapy, Shingu College

Dept. of Physical Therapy, Dongnam Health College<sup>2)</sup>

### Key Words:

Physical therapist, Post-Graduate, Educational environment

### ABSTRACT

**Background:**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know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n physical therapists who were working at clinical field after graduation.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41 therapists who took and OMPT or PNF course at Seoul, Incheon and Kyonggido. The data were collected during April to June 2012. The data were analysis by SPSS PC by cross-tab, mean, percentage. **Result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hysical therapists who took post-graduate education: female (56.0%), 1-3 years clinical experience (41.5%), 25-29 years old (46.5%). The main reason to take post-graduate educational program was to learn more high quality therapeutic skills for the patients treatment (88.4%). But the condition of environment was poor such as they pay all of expenses by themselves (54.9%), not permit to take international post-graduate educational program (77.2%). **Conclusions :** For the better post-graduate educational environment for the physical therapists, it needs systemic plan and sequential strategy with passion for the future.

## I. 서론

물리치료사의 대학교육이 시작된 1963년 이래 2012년 현재 4년제 과정 38개 대학교, 3년제 과정 36개 대학교 등 77개 대학교에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고 있으며 대학원 과정을 개설한 대학교도 15개교이다(대한물리치료사협회, [www.kpta.co.kr](http://www.kpta.co.kr), 2012). 또한 3년제 대학교의 경우에도 전공심화과정으로 임상에서 근무하면서 1년을 수학한 뒤 학사학위를 주고 있는 대학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학사, 석사, 박사의 수가 증가하는 의미는 물리치료사가 단순 기술직이 아닌 학문적인 배경을 가진 전문기술인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협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졸업 후 교육을 2,000시간 학습하면 소아전문치료사로 인정하는 등 각종 전문치료사제도도 각 나라마다 인정되는

등 졸업 후 교육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인인구와 장애인 및 물리치료 대상 질환 환자를 위해 전문적이고 선진화된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사들도 이러한 전공 선진지식을 습득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이와 같이 물리치료의 역사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물리치료사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물리치료사의 교육환경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들은 대부분 직무만족도 등 직무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있으나, 전공 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물리치료사를 위한 정책자료와 처우개선,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정보가 요구되어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졸업 후 임상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교육수강 이유와 전공교육과 관련된 기관별 교육환경의 특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교육환경개선 등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교신저자: 황성수(신구대학교, [sshwang@shingu.ac.kr](mailto:sshwang@shingu.ac.kr))  
 논문접수일: 2012.08.13, 논문수정일: 2013.10.04,  
 게재확정일: 2013.11.04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졸업 후 임상물리치료사의 전공교육 수강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3. 졸업 후 임상물리치료사의 교육환경수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 1) 근무기관 유형별 전공 교육수강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 2) 근무기관 유형별 자체교육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 3) 근무기관 유형별 국내외 교육비 지원을 알아보고자 한다.
- 4) 근무기관 유형별 대학원 진학 유무를 알아보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설문대상자

설문대상자는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산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회에서 실시한 상지패키지, 흉요추패키지, 경추패키지, 골반패키지 연수교육에서 교육받는 교육생 중에서 동일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을 제외한 118명과 대한고유수용성신경근축진법학회(PNF) 산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회에서 실시한 소개코스, 파트코스, 국제코스를 이수하고 있는 교육생 중에서 동일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을 제외한 1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동의한 물리치료사 총 2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106명(44.0%), 여자 135명(56.0%)이었다.

### 2. 설문지

물리치료사의 전반적인 교육환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10문항, 졸업 후 전공교육 수강 특성 3문항, 교육환경 특성 17문항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지는 타당성을 갖기 위해 임상에서 근무하는 치료사 3명을 대상으로 설문에 응답하게 하여 실제 근무기관의 교육과 관련된 내용의 누락여부와 설문 문항의 이해정도를 조사하여 설문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제작하였다.

### 3. 자료 수집 및 절차

자료수집은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와 대한고유수용성신경근축진법학회 산하 서울특별시회, 경기도회, 인천광역시회의 3개 시도회에서 실시중인 연수강좌 이수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수강 중인 물리치료사들에게 연

구자와 보조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여 작성하게 한 후 교육이 끝나는 시간에 전부 수거하였으며 설문대상자가 충분히 응답할 시간을 제공하였다. 이때 같은 직장에 근무 중인 치료사는 한 명 만이 작성하게 하였다. 이는 교육환경이 동일하여 이중 기록을 배제하기 위함이었다. 수집기간은 2012년 4월20일부터 2012년 6월20일까지 2개월간이었다.

### 4. 자료처리

회수된 설문지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0을 사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비교, 카이제곱 값을 구하여 분석하였다.

### 5. 연구의 제한점

- 1) 일부 서울, 인천 및 경기도 지역의 연구대상자를 실시하였으므로 전체 연구대상자에게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 2) 설문지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지만 설문지 배포 시에 보조연구자가 설문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지만 설문 내용에 대답이 누락된 항목이 많았다.
- 3) 각 설문지 내용에서 241명이 모두 대답해야 하는데 설문대상자가 대답을 안한 경우에 무응답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실제로 대답한 설문대상자만을 토대로 통계처리 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1) 성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연구대상자는 241명으로 여자가 135명(56.0%)으로 남자의 106명(44.0%)보다 여자가 12% 더 많았다. 결혼유무는 미혼이 203명(84.2%)으로 여자(48.5%)가 남자(35.7%)보다 많았고, 근무형태는 정규직이 195명(80.9%)으로 여자(45.2%)가 남자 (35.7%)보다 많았고, 근무하고 있는 기관유형은 전문재활병원(25.8%), 의원(18.9%) 순이었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는 종합병원(10.8%), 재활병원(10.8%)의 순이었고 여자는 전문재활병원(14.9%), 의원(11.6%)의 순이었다. 연령군은 25세에서 29세까지가 112명(46.5%)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를 성별로 보면, 여자는 24세 이하(27.0%)가 가장 많았고, 남자는 25-29세까지(27.0%)가 가장 많았다. 경력연차는 1년 이상 3년 미만이 41.5%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 보면, 남자(17.4%),

여자(24.1%) 모두 같은 비율로 많았다. 학력은 전문학사가 58.9%로 가장 많았고 학사는 남녀에서 각각 44명(18.3%)으로 동률을 나타내었고, 석사학위 소지는 4.6%이었고 성별로 보면 남자(3.7%)가 여자(8%)보다 많았다(Table 1).

### 2) 수강교육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수강교육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서 OMPT교육군은 남자(24.9%)가 많았고 PNF교육군은 여자(32.0%)가 많았으며, 두 군 모두에서 연령군은 25-29세가, 학력은 전문학사군이, 근무유형은 정규직이었다. 근무기관유형에서 OMPT교육군은 의원(12.9%), 종합병원(11.2%)의 순이었고, PNF교육군은 전문재활병원(18.3%), 요양병원(10.8%)의 순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경력연차에서는 OMPT교육군은 1년 이상~3년 미만(17.8%), 1년 미만(14.5%)의 순이었고, PNF교육군은 1년 이상~3년 미만(23.7%), 3년 이상~5년 미만(13.3%)의 순이었다(Table 2).

## 2. 졸업 후 전공교육 수강 특성

### 1) 수강교육군별, 근무기관 유형별 교육을 수강한 이유

졸업 후 전공교육을 수강한 이유를 살펴보면(복수응답 가능), 환자치료에 도움을 주기위하여가 8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지식정보의 습득을 위하여(73.0%), 나의 경력을 쌓기 위하여(54.8%)의 순 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수강교육군별, 근무기관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Table 3, 4).

수강교육군별 교육을 수강한 이유를 살펴보면 OMPT, PNF 두 교육군 모두에서 환자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OMPT(43.6%), PNF(44.8%), 지식정보의 습득을 위하여 OMPT(37.8%), PNF(35.3%), 나의 경력을 쌓기 위하여 OMPT(24.9%), PNF(29.9%)의 같은 순위를 나타내었다.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높은 연봉을 위하여 와 타인이나 직장의 요구에 의하여 항목이었으며 두 항목 모두에서 PNF교육군이 OMPT교육군보다 높은 경우를 나타내었다( $p < .05$ )(Table 3)

근무기관유형별 교육을 수강한 이유를 살펴보면 모든 근무기관유형에서 동일하게 환자치료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88.4%)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지식정보의 습득을 위해서(7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환자치료에 도움을 주기위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근무기관은 전문재활병원(22.4%)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by sex

구분	구분	남자	여자	계	
		실수(%)	실수(%)		
결혼유무	기혼	20(8.3)	18(7.5)	38(15.8)	
	미혼	86(35.7)	117(48.5)	203(84.2)	
근무형태	정규직	86(35.7)	109(45.2)	195(80.9)	
	비정규직	13(5.4)	18(7.5)	31(12.9)	
	인턴직	6(2.5)	2( .8)	8(3.3)	
	수습직	1( .4)	3(1.2)	4(1.7)	
	기타	0	3(1.2)	3(1.2)	
기관유형	종합병원	26(10.8)	17(7.1)	43(17.9)	
	준종합병원	20(8.3)	23(9.5)	43(17.9)	
	전문재활병원	26(10.8)	36(14.9)	62(25.8)	
	요양병원	13(5.4)	23(9.5)	36(14.9)	
	의원	16(6.6)	28(11.6)	44(18.3)	
	복지관, 보건소	3(1.2)	4(1.7)	7(2.9)	
	무응답	2( .8)	4(1.7)	6(2.5)	
	연령군	24세이하	15(6.2)	65(27.0)	80(33.2)
		25-29세	65(27.0)	47(19.5)	112(46.5)
30-39세		24(9.6)	18(7.5)	42(17.4)	
40세이상		2( .8)	5(2.1)	7(2.9)	
경력연차	1년미만	22(9.1)	19(7.9)	41(17.0)	
	1년 이상~3년 미만	42(17.4)	58(24.1)	100(41.5)	
	3년 이상~5년 미만	20(8.3)	26(10.8)	46(19.1)	
	5년 이상~7년 미만	11(4.6)	12(5.0)	23(9.5)	
	7년 이상~9년 미만	2( .8)	8(3.3)	10(4.1)	
	9년 이상	9(3.7)	12(5.0)	21(8.7)	
학력	전문학사	53(22.0)	89(36.9)	142(58.9)	
	학사	44(18.3)	44(18.3)	88(36.5)	
	석사	9(3.7)	2( .8)	11(4.6)	
계		106(44.0)	135(56.0)	241(100.0)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by study group

구 분	OMPT		계		
	실수(%)	PNF 실수(%)			
성별	남자	60(24.9)	46(19.1)	106(44.0)	
	여자	58(24.1)	77(32.0)	135(56.0)	
연령 군	24세 이하	41(17.0)	39(16.2)	80(33.2)	
	25~29세	54(22.4)	58(24.1)	112(46.5)	
	30~39세	19(7.9)	23(9.5)	42(17.4)	
	40세 이상	4(1.7)	3(1.2)	7(2.9)	
학력	전문학사	68(28.2)	74(30.7)	142(58.9)	
	학사	42(17.4)	46(19.1)	88(36.5)	
	무응답	8(3.32)	3(1.2)	11(4.6)	
기관 유형	종합병원	27(11.2)	16(6.6)	43(17.8)	
	중 종합병원	26(10.8)	17(7.1)	43(17.8)	
	전문 재활병원	18(7.5)	44(18.3)	62(25.7)	
	요양병원	10(4.1)	26(10.8)	36(14.9)	
	의원	31(12.9)	13(5.4)	44(18.3)	
	복지관, 보건소	3(1.2)	4(1.7)	7(2.9)	
	무응답	3(1.2)	3(1.2)	6(2.5)	
	근무 유형	정규직	92(38.2)	103(42.7)	195(80.9)
		비정규직	15(6.2)	16(6.6)	31(12.9)
인턴직		6(2.5)	2( .8)	8(3.3)	
수습직		3(1.2)	1(0.4)	4(1.7)	
기타		2(0.8)	1(0.4)	3(1.2)	
경력 연차	1년미만	35(14.5)	6(2.5)	41(17.0)	
	1년이상~ 3년미만	43(17.8)	57(23.7)	100(41.5)	
	3년이상~5 년미만	14(5.8)	32(13.3)	46(19.1)	
	5년이상~7 년미만	10(4.1)	13(5.4)	23(9.5)	
	7년이상~9 년 미만	4(1.7)	6(2.5)	10(4.1)	
	9년 이상	12(5.0)	9(3.7)	21(8.7)	
계	118(49.0)	123(51.0)	241(100.0)		

근무기관유형별 수강한 이유에서 높은 연봉을 위하여 항목에서 기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Table 4).

**Table 3.** Reasons to take course by study group (N=241)

주된 수강이유	OMPT <sup>a</sup>		PNF <sup>b</sup>		계	p
	실수(%)	실수(%)	실수(%)	실수(%)		
환자치료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105 (43.6)	108 (44.8)	213 (88.4)	.775		
교육 후 이직을 위하여	19 (7.9)	23 (9.5)	42 (17.4)	.595		
나의 경력을 위하여	60 (24.9)	72 (29.9)	132 (54.8)	.231		
높은 연봉을 위하여	30 (12.4)	62 (25.7)	92 (38.2)	.000		
지식정보의 습득을 위하여	91 (37.8)	85 (35.3)	176 (73.0)	.161		
타인이나 직장의 요구에 의하여	1 ( .4)	8 (3.3)	9 (3.7)	.021		
기타	4 (1.7)	1 ( .4)	5 (2.1)	.161		

<sup>a</sup>OMPT :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sup>b</sup>PNF :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 3. 교육환경수준

#### 1) 근무기관 유형별 전공 교육수강 특성

물리치료사가 기관에 근무하면서 전공교육을 수강하고자 할 때 각종 전공교육의 수강 가능여부, 불가능이유, 가능기간, 수강 시 휴가처리, 업무공백처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5).

주중에 전공 관련 각종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면 불가능(73.6%)이 가능(26.4%)보다 많았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모든 기관에서 동일하게 불가능이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주중 교육 수강의 불가능의 이유를 보면 규정이 없어 임기응변식(49.1%)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허락하지 않음(33.5%)이었다.

교육수강 시 휴가처리를 살펴보면 개인연차에서 삭감(57.4%)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휴가처리(27.7%)이었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모든 기관에서 교육수강기간을 연차에서 삭감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기관유형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교육수강 중 업무공백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면 동료 치료사에게 인계하는 경우(73.9%)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개인이 단기 알바를 구하여 본인이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12.6%)이었다. 각 근무기관 유형별 업무공백채우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

**Table 4.** Reasons to take course by types of working facilities

(N=241)

주된 수강이유	근무기관유형							계	p
	종합병원	준종합병원	전문재활병원	요양병원	의원	복지관, 보건소	무응답		
환자치료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38(15.8)	40(16.6)	54(22.4)	32(13.3)	38(15.8)	6(2.5)	5(2.1)	213(88.4)	.967
교육 후 이직을 위하여	7(2.9)	5(2.1)	10(4.1)	5(2.1)	11(4.6)	3(1.2)	1(0.4)	42.0(17.4)	.387
나의 경력을 쌓기 위하여	26(10.8)	21(8.7)	32(13.3)	24(10.0)	22(9.1)	4(1.7)	3(1.2)	132(54.8)	.683
높은 연봉을 위하여	10(4.1)	10(4.1)	28(11.6)	21(8.7)	18(7.5)	1(0.4)	4(1.7)	92(38.2)	.003
지식정보의 습득을 위하여	32(13.3)	28(11.6)	46(19.1)	26(10.8)	35(14.5)	4(1.7)	5(2.1)	176(73.0)	.726
타인이나 직장의 요구에 의하여	1 (.4)	2 (.8)	3(1.2)	1(.4)	1(.4)	0	1(1.4)	9(3.7)	.682
기타	1(.4)	0	1(.4)	0	2(.8)	0	1(.4)	5(2.1)	.147

No(%)

**Table 5.** The characteristics of taking course by types of working facilities

(N=241)

구 분		근무기관유형							계	
		종합병원	준종합병원	전문재활병원	요양병원	의원	복지관, 보건소	무응답		
주중수강 가능여부	가능	15(6.5)	12(5.2)	18(7.8)	8(3.5)	4(1.7)	2(.9)	2(.9)	61(26.4)	$\chi^2=9.804$ df=6 p=.133
	불가능	28(12.1)	28(12.1)	42(18.2)	27(11.7)	38(16.5)	5(2.2)	2(.9)	170(73.6)	
계		43(18.6)	40(17.3)	60(26.0)	35(15.2)	42(18.2)	7(3.0)	4(1.7)	231(100.0)	
불가능 이유	허락안함	7(4.2)	12(7.2)	7(4.2)	11(6.6)	16(9.6)	2(1.2)	1(.6)	56(33.5)	$\chi^2=22.030$ df=18 p=.231
	선임자 우선기회	2(1.2)	1(.6)	8(4.8)	3(1.8)	1(6)	0	0	15(9.0)	
	기회가 제한적임	3(1.8)	2(1.2)	6(3.6)	2(1.2)	0	1(.6)	0	14(8.4)	
	규정이 없음	16(9.6)	14(8.4)	23(13.8)	11(6.6)	15(9.0)	2(1.2)	1(.6)	82(49.1)	
계		28(16.8)	29(17.4)	44(26.3)	27(16.2)	32(19.2)	5(3.0)	2(1.2)	167(100.0)	
교육 수강시 휴가처리	휴가처리	13(6.9)	4(2.1)	22(11.7)	9(4.8)	2(1.1)	0	2(1.1)	52(27.7)	$\chi^2=16.965$ df=12 p=.151
	일부휴가 처리	3(1.6)	6(3.2)	9(4.8)	4(2.1)	4(2.1)	1(0.5)	1(0.5)	28(14.9)	
	개인연차 에서삭감	21(11.2)	23(12.2)	26(13.8)	18(9.6)	15(8.0)	4(2.1)	1(0.5)	108(57.4)	
계		37(19.7)	33(17.6)	57(30.3)	31(16.5)	21(11.2)	5(2.7)	4(2.1)	188(100.0)	
교육 수강시 업무공백 처리	동료에 환자인계 병원지원 단기알바 구인	33(15.9)	29(14.0)	52(25.1)	23(11.1)	11(5.3)	2(1.0)	3(1.4)	153(73.9)	$\chi^2=77.379$ df=24 p=.000
	개인부담 단기알바 구인	0	3(1.4)	2(1.0)	3(1.4)	3(1.4)	0	0	11(5.3)	
	환자치료 중지	2(1.0)	1(0.5)	2(1.0)	4(1.9)	14(6.8)	2(1.0)	1(.5)	26(12.6)	
	기타	6(2.9)	0	3(1.4)	3(1.4)	1(0.5)	2(1.0)	0	15(7.2)	
	기타	0	0	0	0	2(1.0)	0	0	2(1.0)	
계		41(19.8)	33(15.9)	59(28.5)	33(15.9)	31(15.0)	6(2.9)	4(1.9)	207(100.0)	

No(%)

**Table 6.** The status and type to have educational program by types of working facilities

(N=241)

구 분		근무기관유형							계	
		종합병원	준종합병원	전문재활병원	요양병원	의원	복지관, 보건소	무응답		
정기적인 연수	있다	30(13.2)	22(9.6)	28(12.3)	9(3.9)	5(2.2)	2(0.9)	2(0.9)	98(43.0)	$\chi^2=35.010$ df=6 p=.000
	없다	13(5.7)	18(7.9)	32(14.0)	26(11.4)	35(15.4)	4(1.8)	2(0.9)	130(57.0)	
계		43(18.9)	40(17.5)	60(26.3)	35(15.4)	40(17.5)	6(2.6)	4(1.8)	228(100.0)	
연수교육	전공분야	4(4.1)	5(5.1)	20(20.4)	5(5.1)	3(3.1)	0	1(1.0)	38(37.2)	$\chi^2=80.623$ df=30 p=.000
	친절교육	11(11.2)	10(10.2)	5(5.1)	2(2.0)	1(1.0)	1(1.0)	1(1.0)	31(30.3)	
	행정교육	0	1(1.0)	0	0	0	0	0	1(1.0)	
	기타	1(1.0)	0	0	0	0	0	0	1(1.0)	
	위의 모두	14(14.3)	6(6.1)	3(3.1)	2(2.0)	1(1.0)	1(1.0)	0(0.0)	27(26.5)	
계		30(30.6)	22(22.4)	28(28.6)	9(9.2)	5(5.1)	2(2.0)	2(2.0)	98(100.0)	
외부강사초빙교육	연 1회	3(1.4)	2(0.9)	6(2.8)	8(3.7)	1(0.5)	1(0.5)	2(0.9)	23(10.6)	$\chi^2=43.669$ df=4 p=.008
	연 2회	2(0.9)	3(1.4)	7(3.2)	3(1.4)	1(0.5)	0(0.0)	0(0.0)	16(7.4)	
	연 3회	0(0.0)	4(1.9)	3(1.4)	0(0.0)	0(0.0)	0(0.0)	0(0.0)	7(3.2)	
	연4회이상	4(1.9)	1(0.5)	2(0.9)	0(0.0)	0(0.0)	1(0.5)	0(0.0)	8(3.7)	
	무	34(15.7)	27(12.5)	41(19.0)	23(10.6)	31(14.4)	5(2.3)	1(0.5)	162(75.0)	
계		43(19.9)	37(17.1)	59(27.3)	34(15.7)	33(15.3)	7(3.2)	3(1.4)	216(100.0)	
학술집담회	있다	31(13.7)	20(8.8)	45(19.8)	20(8.8)	6(2.6)	2(0.9)	2(0.9)	126(55.5)	$\chi^2=40.049$ df=6 p=.000
	없다	12(5.3)	20(8.8)	16(7.0)	14(6.2)	32(14.1)	5(2.2)	2(0.9)	101(44.5)	
계		43(18.9)	40(17.6)	61(26.9)	34(15.0)	38(16.7)	7(3.1)	4(1.8)	227(100.0)	
학술집담회 형태	주 1회	21(17.2)	8(6.6)	22(18.0)	10(8.2)	0	1(0.8)	1(0.8)	63(51.6)	$\chi^2=36.461$ df=30 p=.193
	월 2회	1(0.8)	2(1.6)	4(3.3)	2(1.6)	1(0.8)	0	1(0.8)	11(9.0)	
	월 1회	4(3.3)	3(2.5)	11(9.0)	6(4.9)	1(0.8)	0	0(0.0)	25(20.5)	
	분기 1회	4(3.3)	2(1.6)	2(1.6)	1(0.8)	1(0.8)	0	0(0.0)	10(8.2)	
	연 1회	1(0.8)	2(1.6)	1(0.8)	1(0.8)	0	1(0.8)	0(0.0)	6(4.9)	
	기타	0	2(1.6)	3(2.5)	0	2(1.6)	0	0(0.0)	9(5.7)	
계		31(24.2)	19(15.6)	43(35.2)	20(16.4)	5(4.1)	2(1.6)	2(1.6)	122(100.0)	

No(%)

**2) 근무기관유형별 자체교육 유무와 형태**

근무기관 유형별 자체 정기 연수교육 유무와 연수내용, 외부강사 초빙교육, 학술집담회 유무와 형태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Table 6).

근무기관유형별로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직원연수교육 실시 유무를 살펴보면 없다(57.0%)가 있다(43.0%)보다 많았다. 이를 기관유형별로 보면 종합병원(13.2%)과 준종합병원(9.6%)의 순으로 정기연수 교육이 있는 반면, 의원(15.4%), 전문재활병원(14.0%), 요양병원(11.4%)의 순으로 정기 연수교육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 연수교육에 대해 기관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정기연수가 있다는 경우, 연수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전공분야교육(37.2%), 친절교육(30.3%), 위의 모두(26.5%)의 순이었으며, 기관유형별로는 종합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의 연수(14.3%)가 많았으며, 준 종합병원에서는 친절교육(10.2%), 전문재활병원에서는 전공분야교육(20.4%), 요양병원에서도 전공분야교육(5.1%)이 많았다. 연수교육내용에 대해 기관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외부강사초빙교육을 살펴보면 없다가 75.0%로 가장 많았고 연 1회가 10.6%, 연 2회가 7.4%의 순이었다. 기관유형별로는 있다는 경우에서 년 1회의 경우 요양병원(3.7%), 전문재활병원(2.8%)의 순이었으며, 기관 유형

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1$ )

학술집담회를 자체적으로 실시유무를 살펴보면 있다(55.5%)가 없다(44.5%)보다 많았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있다의 경우는 전문재활병원(19.8%), 종합병원(13.7%), 요양병원(8.8%)의 순이었고, 없다의 경우는 의원(14.1%), 준종합병원(8.8%), 전문재활병원(7.0%)의 순이었으며 각 기관 유형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1$ ).

학술집담회의 형태를 살펴보면 주 1회(51.6%), 월 1회(20.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관유형별로 주 1회 실시하는 기관은 전문재활병원(18.0%) 종합병원(17.2%), 요양병원(8.2%)의 순이었다.

근무기관별 정기연수, 연수교육내용, 외부강사초빙교육 그리고 학술집담회 실시유무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p < .01$ ), 학술집담회 형태에서는 기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6).

**Table 7.** The financial support for course by types of working facilities

구 분	근무기관유형							계	p	
	종합병원	준종합병원	전문재활병원	요양병원	의원	복지관 보건소	무응답			
국내 교육비 지원	전액지원	4(1.8)	3(1.3)	9(4.0)	4(1.8)	0	0	1(4)	21(9.3)	$\chi^2=33.137$ df=12 p=.001
	일부지원	16(7.1)	9(4.0)	31(13.7)	14(6.2)	6(2.7)	3(1.3)	2(9)	81(35.8)	
	지원없음	21(9.3)	28(12.4)	20(8.8)	17(7.5)	33(14.6)	4(1.8)	1(4)	124(54.9)	
계		41(18.1)	40(17.7)	60(26.5)	35(15.5)	39(17.3)	7(3.1)	4(1.8)	226(100.0)	
해외연 수참여	가능	13(5.8)	7(3.1)	16(7.1)	9(4.0)	4(1.8)	2(9)	0	51(22.8)	$\chi^2=6.996$ df=6 p=.321
	불가능	30(13.4)	32(14.3)	45(20.1)	24(10.7)	33(14.7)	5(2.2)	4(1.8)	173(77.2)	
	계		43(19.2)	39(17.4)	61(27.2)	33(14.7)	37(16.5)	7(3.1)	4(1.8)	
해외연 수참여 가능 기간	3-4일	2(3.6)	3(5.5)	5(9.1)	3(5.5)	0	1(1.8)	0	14(25.5)	$\chi^2=33.790$ df=20 p=.028
	1주일 이내	11(20.0)	2(3.6)	10(18.2)	4(7.3)	5(9.1)	0	0	32(58.2)	
	1-2주	0	3(5.5)	1(1.8)	1(1.8)	1(1.8)	0	0	6(10.9)	
	2-3주	0	1(1.8)	0	0	0	0	0	1(1.8)	
	4주이상	0	1(1.8)	0	0	0	1(1.8)	0	2(3.6)	
계		13(23.6)	10(18.2)	16(29.1)	8(14.5)	6(10.9)	2(3.6)	0	55(100.0)	
해외연 수경비 부담	전액지원	2(1.7)	0	3(2.6)	0	0	0	0	5(4.3)	$\chi^2=11.835$ df=12 p=.459
	일부지원	4(3.4)	1(9)	6(5.1)	1(9)	1(9)	0	0	13(11.1)	
	지원없음	15(12.8)	22(18.8)	26(22.2)	14(12.0)	15(12.8)	6(5.1)	1(9)	99(84.6)	
계		21(17.9)	23(19.7)	35(29.9)	15(12.8)	16(13.7)	6(5.1)	1(9)	117(100.0)	

No(%)

### 3) 근무기관유형별 국내외 교육비 지원

근무기관유형별 국내외 외부 전공연수교육 이수 시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교육 연수시 지원정도는 지원없음(54.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일부지원(35.8%)이었다. 근무기관 유형별로 보면 전액지원은 전문재활병원(4.0%)로 가장 많았고, 일부지원은 전문재활병원(13.7%)이 많았고, 지원없음의 경우에는 의원(14.6%)이 가장 많았다.

이를 기관유형별 응답자 수를 살펴보면 지원없음은

응답한 의원근무자 39명 중 33명(84.6%), 준 종합병원 근무자 40명 중 28명(70%), 종합병원근무자 41명 중 21명(51.2%), 재활병원 근무자 60명 중 20명(33.3%)의 순이었다. 일부지원의 경우 응답한 전문재활병원 근무자 60명 중 31명(51.2%), 종합병원 근무자 41명 중 16명(39.0%)의 순이었다. 국내 교육비 지원에 대해 근무기관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1$ )

해외연수 참여가능 정도를 살펴보면 불가능(77.2%)이 가능(22.8%)보다 많았다. 근무기관유형별로도 큰 차이

없이 모두 불가능하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면 전문재활병원(7.1%), 종합병원(5.8%)의 순이었다. 기관유형에 대한 해외 연수 참여가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해외연수 참여가능하다는 경우에서 해외연수 참여가능기간을 살펴보면 1주일 이내(58.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4일(25.5%), 1-2주(10.9%)의 순이었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은 1주일 이내(20.0%)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전문재활병원(18.2%)이었으며, 3-4일 가능한 경우는 전문재활병원(9.1%)에서 많았다. 요양병원에서는 1-2주 이내(7.3%), 3-4일(5.5%)에서 가능하였고, 의원은 1주 이내(9.1%) 기간에서 해외연수에 참여가능하였다. 해외연수참여 가능기간에 대해 근무기관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 해외 연수 시 경비부담은 지원없음(84.6%)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일부지원(11.1%)이었다. 일부지원이 있는 경우 재활전문병원(5.1%)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종합병원(3.4%)의 순이었다.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국내교육비지원과 해외연수 참여 가능기간에서는 기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나( $p < .05$ ), 해외연수참여, 해외연수비 부담에서는 기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7).

#### 4) 근무기관 유형별 대학원 진학 유무

근무기관유형별 진학 유무를 살펴보면 대학원 진학이 가능하다(75.3%)가 불가능하다(24.7%)보다 많았다. 출석이 가능한 경우는 전문재활병원(24.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대학병원(16.0%)의 순이었다. 불가능한 경우는 의원(9.6%) 준 종합병원(5.0%)의 순이었다. 대학원 진학에 대해 근무기관유형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 < .05$ ).

대학원 출석이나 진학이 불가능한 이유를 살펴보면 배려가 없는 경우(71.7%)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허락이 안되는 이유(20.0%) 이었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준종합병원(20.0%)과 의원(25.0%)이 배려가 가장 없는 경우가 많았다. 대학원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기관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8).

**Table 8.** The possibility to go graduate school by types of working facilities

구 분	근무기관유형							계		
	종합병원	준종합병원	전문재활병원	요양병원	의원	복지관, 보건소	무응답			
대학원 출석가능	가능	35(16.0)	28(12.8)	53(24.2)	26(11.9)	14(6.4)	5(2.3)	4(1.8)	165(75.3)	$\chi^2=32.659$ df=6 p=.000
	불가능	7(3.2)	11(5.0)	7(3.2)	6(2.7)	21(9.6)	2(0.9)	0	54(24.7)	
계		42(19.2)	39(17.8)	60(27.4)	32(14.6)	35(16.0)	7(3.2)	4(1.8)	219(100.0)	
대학원 불가능 이유	허락안됨	1(1.7)	0	3(5.0)	2(3.3)	5(8.3)	1(1.7)	0	12(20.0)	$\chi^2=17.794$ df=15 p=.274
	선임우선	0	0	2(2.2)	0	0	0	0	2(3.3)	
	배려없음	5(8.3)	12(20.0)	5(8.3)	5(8.3)	15(25.0)	1(1.7)	0	43(71.7)	
	기타	0	0	1(1.7)	1(1.7)	1(1.7)	0	0	3(3.0)	
계		6(10.0)	12(20.0)	11(18.3)	8(13.3)	21(35.0)	2(3.3)	0	60(100.0)	

## IV. 고 찰

연구대상인 설문지 응답자 수를 살펴보면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의 연구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구대상의 수는 57명(문제강 등, 2010), 206명(전재균, 1991), 114명(박윤기와 박명조, 1990), 290명(어경홍과 이충희, 1986), 120명(이형수 등, 2004), 113명(박성하 등, 2002), 204명(이지현과 손애리, 2003)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2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비교적 대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통계적인 값의 신뢰

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표집방법에서 병원에 근무하는 치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형수 등, 2004; 박윤기와 박명조, 1990), 물리치료사 학술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박성하 등, 2002; 어경홍과 이충희, 1986),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문제강 등, 2010) 등이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졸업 후 전공분야 연수과정에 참가한 임상치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졸업 후 전공연수를 계획하는 각 학회에 정보를 제공하여 가치가 있다고 하겠으나 전체



물리치료사에게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근무하는 치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점이 전남 동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실시한(이형수 등, 2004), 충청지역 일부분을 대상으로 실시한(박성하 등, 2002) 연구와는 다르다 하겠으며 서울과 수도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는 점이 향후 우리나라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교육환경정책을 펴나가는데 기초 자료가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241명의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환경 특성을 분석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전체 지역의 연구대상자에게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졸업 후 전공교육을 수강하는 물리치료사의 연령층을 살펴보면 25-29세(46.5%), 24세이하(33.2%)가 20대가 전체 교육대상자의 79.7%로 주된 교육수강연령층은 20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OMPT와 PNF교육군 모두에서 같은 경향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 전공분야 졸업후 연수교육을 준비할 때 이들의 선호에 맞는 주제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경력연차를 살펴보면 1년이상 3년미만(41.5%), 3년이상 5년 미만(19.1%)로 경력자가 많았는데 이는 젊은 층의 교육 열기가 높은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30-40대도 20.1%로 물리치료사의 교육 열기는 젊은층 뿐만 아니라 경력층에서도 꾸준히 전공지식을 습득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OMPT와 PNF교육군 모두에서 같은 경향이었으며 앞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의 기회를 확충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근무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문재활병원(25.7%), 의원(18.3%)의 순이었는데 이는 OMPT 교육군은 의원(12.9%), 종합병원(11.2%) 근무자가 많았으며, PNF교육군은 전문재활병원(18.3%), 요양병원(10.8%) 근무자가 많아 전공 교육 주제와 근무기관유형에서 두 교육군간에 차이가 났다. 이러한 특성은 전문물리치료의 종별을 분류하는데 좋은 기초자료가 된다고 하겠다.

졸업 후 전공교육 수강이유를 살펴보면 환자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88.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지식정보의 습득을 위하여 73.0%, 나의 스펙을 쌓기 위하여 54.8%의 순이었다. OMPT, PNF 두 교육군간 모두에서도 물리치료사들의 졸업 후 전공분야 교육의 수강의 주된 이유는 환자 치료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적인 목적이 아니라 물리치료사로서의 발전을 환자의 치료에 근거를 둔다는 의미로 우리나라의 물리치료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된다고 사료된다.

OMPT와 PNF 두 교육군간의 차이가 있는 항목을 살

펴보면 높은 연봉이나 타인이나 직장의 요구에 의해서 이었는데, 이는 OMPT교육군보다 PNF교육군에서 많았는데 그 이유는 중추신경계 환자를 담당하는 치료사의 경우 흔히 말하는 이수증 유무에 따라 보험금을 요구할 수 있기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외부강의를 수강하는 교육환경을 살펴보면 주중연수 참가는 73.6%에서 불가능하였고, 해외연수 참여는 77.2%가 불가능한 것으로 열약하였다. 본인부담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참가하려는 치료사의 교육의지를 기관들이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자체 기관의 연수나 특강이 없었고(57.0%) 친절교육(30.3%)이 있다하더라도 근무하는 치료사의 치료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즉, 물리치료사를 위한 의료기관들의 직무와 관련된 전공분야 지속교육에 대한 관심은 매우 열약하였다.

그러나 물리치료실 자체적으로 집담회를 운영하는 기관이 50%나 되었고 집담회 횟수도 주 1회에서 월 1회 가 많았는데 이는 치료사들의 노력으로 자구적인 해결책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치료사들의 노력에 임상기관 운영자들은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며 보다 나은 물리치료의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과감한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물리치료사의 경우에도 2,000시간을 졸업 후 연수를 통해 소아 전문치료사자격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으며, IFOMPT에서도 도수치료전문치료사제도를 1,000시간이상으로 연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중추신경계 전문재활료로 120시간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치료사들을 위한 교육환경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물리치료사제도가 생긴다 하더라도 많은 임상물리치료사들은 교육수강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현실에 해결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를 보면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의 대부분이 인간관계, 능력, 근무경력, 연봉액, 근무처와의 거리, 결혼유무 등 외적, 철학적, 이상적, 이론적 근거에 두고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직무만족을 높이는데 뒷받침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정책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향후 보다 더 진보하기위해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논문이 연구됨으로써 물리치료사들의 사회적, 경제적, 학문적 가치를 더 높이는 정책에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 V. 결론

2012년 4월 20일부터 6월20일까지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와 대한고유수용성신경근축진법학회 산하 서울특별시회, 인천광역시회, 경기도회에서 실시하는 연수 과정에 수강중인 241명의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물리치료사의 교육환경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타났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로는 여자(56.0%), 결혼 상태는 미혼(84.2%), 연령층은 25-29세(46.5%), 근무기관은 재활병원(25.8%), 경력은 1년 이상 3년 미만(41.5%)이 많았다. OMPT와 PNF 교육수강생의 특성을 보면 성별에서는 OMPT는 남자가 PNF는 여자가 많았고, 연령군에서는 두 교육군 모두 25-29세가 많았고, 근무기관은 OMPT는 의원이 PNF는 재활병원이 많았다. 근무형태와 경력연차는 두 군 모두에서 정규직과 1년 이상 3년 미만이 많았다.

2. 졸업 후 교육을 수강하게 되는 주된 이유로는 환자치료에 도움을 주기위해서가 총 응답자의 88.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지식정보의 습득을 위하여가 73.0%이었고, OMPT 교육군과 PNF 교육군 간에는 높은 연봉을 위하여와 타인이나 직장의 요구에 의해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3. 교육환경특성은 주중에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경우는 전체의 73.6%가 불가능하였다. 특히 해외연수는 77.2%가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규정이 없이 임기응변의 교육참여 허락이 49.1%이었고, 무조건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33.5%로 나타났다. 교육 참여시 교육비 지원은 해외연수는 84.6%가 국내연수도 54.9%에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수강가능일자는 1-2일이 전체의 27.5%로 가장 많았으며 1주일 이상인 경우는 전문재활병원과 요양병원에서 가능하였다.

자체 정기교육의 경우에도 없다(57.0%)가 많았다. 자체연수내용은 전공교육(37.2%), 친절교육(30.3%) 그리고 위의 모든(26.5%)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학술집담회의 경우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주 1회(51.6%)로 가장 많았고, 전공관련 집담회는 전문재활병원(18.0%), 종합병원(17.2%)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근무 중 대학원 재학 및 출석 가능에서는 가능

(75.3)이 불가능보다 많았으며,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경우에는 배려심이 없는 경우(71.7%)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물리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리치료사들의 높은 자의적이고 열정적 전공지식 함양 의지에 덧붙여 국가, 대학, 및 관련 임상기관에서 다양한 선진 전공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참여지원 제도 등의 협조와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는 어떻게 각 기관들 간의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제시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문제강, 송보경, 황병용. 서울특별시 공공의료기관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2010;22(2):61-68.
- 박성하, 정한신, 최원호. 충북지역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 박윤기, 박맹조.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물리치료사학회지. 1990;11(2):49-63.
- 여경홍, 이충휘.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와 의식도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물리치료사학회지. 1986;7(2):53-63.
- 이지현, 손애리. 물리치료사의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대한물리치료사학회지. 2003;10(2):153-162.
- 이형수, 송화경, 김한나 등. 전남동부지역 물리치료사의 근무환경 및 직무만족도 조사연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2005;17(1):71-86.
- 전재균. 물리치료사의 근무실태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1991;3(1):9-37.
- Americ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www.APTA.org](http://www.APTA.org)
- World Confederation for Physical Therapy: [www.WCP T.org](http://www.WCP T.org)